UPASIKA PRAISED CONTENTS

02 발행인 칼럼 | 김선옥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로 거듭나다

04 불교와 여성 | 김원숙
일렁이는 바다 너머 마주한 고요한 침묵

06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 이영희
인과선원 정덕스님

09 108인 기획 인터뷰 | 전영숙
부처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김무성 강원지원 고문

12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 최혜경
녹두빈대떡

14 현장스케치 | 조정숙
여성불자108인회 제10차 108인 환영 워크숍

21 특별활동 보고 | 백경임
수불스님과 함께 한 집중수행 체험기

24 불교여성개발원 이사·감사/(사)지혜로운여성 이사·감사 소개
사무국 소식

30 산하기관 센터 소식

34 회원 동정

36 재정동참 현황

우바이예찬

2022년 통권 81호 · 통권 82호 합본호

[발행인] 김선옥 [발행일] 2022년7월31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영희, 김원숙,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랄랄라스튜디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빌딩 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 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작품설명]
● 작품명 : 무제
● 재료 : 한지. 수채화물감
● 규격 : 45cm*75cm
● 작가 : 정덕스님

[작가 프로필]
-재단법인 선학원 인과선원 원장
-전)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전국비구니회 법륜장학회 이사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로 거듭나다

남쪽에서 들려오던 동백, 매화, 산수유, 등의 꽃소식이 동네 어귀까지 도처에 화사하게 찾아왔지만, 아쉽게도 '우바이 예찬' 봄호는 발행하지 못했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봄호를 건너뛰면서 가슴에 돌에 얹혀진 듯 답답했고 회원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소식은 주인을 잃은 듯했다. 유래없이 봄호와 여름호를 합쳐 합본을 만드는 지금은 어느덧 한 여름이다. 뜨거운 계절을 견뎌야 성숙하고 단단해짐을 새삼 되뇌여본다.

작년 연말 2021년 12월 28일, 포교원으로부터 포교원 산하단체 해지 공고를 당한 후 바로 해를 넘겨 2022년 1월 28일에 해지가 확정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다른 곳도 아닌 우리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간의 반목과 불화가 해지를 당한 고통보다 더 아프고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막상 해지가 확정되자 우리는 추스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을 단체명칭에서 빼고 '불교여성개발원'으로 개칭하였고,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비영리 독립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고 통장과 제반 서류의 양식을 바꾸어 공식적인 외양도 쇄신했다. 이후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논의하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상설키로 했다. 또한 공석이 있었던 108인회의 각 차수별 차수장과 임원을 모두 구성하였고 센터의 센터장 역시 선정하고 임명했으며 이사회의 빈 자리도 한 분 한 분 보충함으로써 여법한 모습을 다시 갖추게 되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올해 사업으로는 수 년씩 이어오던 기존의 사업을 더욱 발전, 확장시켜 여성불자리더십 과정과 임원워크숍, 지혜 장학회, 군 포교를 위한 자비의 선물, 재소자 영치금 기금 마련, 본 원의 소식지 우바이예찬 발간, 역량있는 회원들의 상호 품앗이 교육 프로그램인 지혜아카데미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원의 신규 사업들도 새롭게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인데, '발전특별위원회'는 K-불교문화콘텐츠 사업, 불교여성연구소는 불교의례가 우리의 삶 속에 친밀하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불교의례의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원예교육, 표현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 먹거리 상시 판매 등도 신규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해안의 고성, 삼척, 울진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회원분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여 1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260여만 원을 조성하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하였다. 위의 성금은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가전구입비로 책정하여 밥솥 300개를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4월에는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 유학 온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학생 171명에게 지혜장학금 일인당 100만 원씩 30명에게 전달하였다. 장학금 전달식은 우크라이나 대사 부인 옥사나 여사와 장학금 수혜자인 유학생 15명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개발원에서 이루어졌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은 자체의 사업뿐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사회단체와도 연계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개발원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의 여성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동 이슈인 기후행동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인권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사)지혜로운여성은 성 평등한 불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성평등불교연대의 공동대표이고,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의 소속단체이기도 하다.

또한 외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개발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공익 활동 지원사업으로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이 선정되었고 지혜로운여성 역시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알콩달콩-도란도란 가족 명상'이 선정되어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지난 4월 20일에는 코바코연수원에서 제 10차 여성불자 108인을 위한 환영회와 108인 워크샵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조계종 5대 포교원장이셨던 혜총 큰스님을 모시고 법문과 함께, 참석한 108인 모두가 하나 하나 무대에 나가 자기소개를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20년 전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불교를 바로 믿고 바로 배우는 여성불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끝으로 지난 5월 30~31일에는 개발원의 큰 행사인 '행복나눔 바자'가 이틀 간 진행되었는데 바자를 준비하며 회원 간 진한 동료애를 느끼고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었다. 창립한 지 21년째를 맞는 우리는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로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사회의 행동하는 리더로서 더욱 단단한 재가불자여성단체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여여 부동하고 견고한 불교여성개발원으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한다.

일렁이는 바다 너머 마주한 고요한 침묵

그림1. 비야 셀민스 〈하늘〉 1975

한 차례 비가 퍼붓고 난 후, 잠시 그친 하늘에 커다란 구름이 몰려가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려나보다. 바람에 몰려가는 잿빛 구름 너머로 비야 셀민스의 그림이 겹쳐진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세계의 유명 미술관들은 문을 닫고 수장고를 정리하는 기회로 이어졌고, 어쩌면 그 덕에 올해 영국 테이트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공동 기획으로 테이트미술관의 최고의 걸작을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빛의 작가 43인전을 만나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번 전시작가들 가운데 비야 셀민스(Vija Celmins, 1939~, 미국)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쟁은 비극이다. 1938년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Riga)에서 태어난 셀민스는 어린 시절 내내 세계2차 대전의 참화를 겪었다. 1940년 소련이 라트비아를 침공하자, 그녀의 일가족은 소련군의 박해를 피해 독일로 피난을 가서 여러 난민 캠프들을 전전해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일가족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주한다. 최근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그 당시의 기억은 매우 오래전 일이라 흐릿한 파편의 조각으로만 남아 있는 듯하다. 그녀는 그저 날아다니는 비행기들과 포탄이 떨어져 폭발하는 장면을 기억할 뿐이다. 기억은 흐려지나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다.

그림2. 비야 셀민스, 〈바다〉, 1975.

셀민스는 모든 정치적 함의나 언급을 배제하고, 오롯이 그녀만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토리얼리즘(Photorealism)'의 회화세계를 창조한다.

얼핏 사진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연필로 그린 소묘작업이다. 단지 검은 바다의 물결만을 화폭에 담아 무채색으로 표현하였다.

포토리얼리즘 회화는 사진적 사실성을 담보로 우리의 시선에 충격을 준다. 사실상 셀민스의 작품 앞에서 이토록 사진처럼 닮게 만들기 위해 가해진 손의 수고로움과 소요된 시간을 짐작하며 놀라워하게 된다.

하지만 셀민스의 작품은 눈에 비치는 사실성 그 너머의 다른 지점으로 관객들을 유도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보다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의 출렁임으로 우리를 이끈다. 모든 색채를 덜어낸 바닷물결이 온전히 환한 빛으로 다가온다. 대개 빛이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매개라지만, 셀민스의 작품에서 빛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을 비추는 등대였는지 모른다.

셀민스는 무한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과 혜성을 그렸으며, 낯선 땅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고독한 소녀 시절을 연상시키는 숲속의 거미줄을 그렸고, 난민으로서 가족과 함께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향하는 유년 시절인 어두운 바다의 물결을 그렸다.

셀민스의 그림은 조형적으로는 갇힌 평면과 열린 공간의 미묘한 긴장이다. 이를 통해서 그는 현존과 부재 사이에서의 역동적인 흔들림을 표현한다. 셀민스의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인간은 무한한 실재로 채워진 현실과 종잇장처럼 가벼운 비현실의 경계에 놓여 있는 불확실한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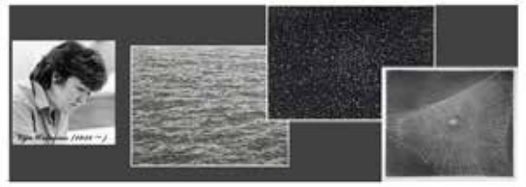


그림3. 비야 셀민스, 〈바다〉, 1975, 종이에 리소그라프, 31.7 x 42.0cm, 테이트미술관
비야 셀민스, 〈별 하늘〉, 1981~2, 종이에 흑연, 48.2 x 68.5cm, 뉴욕데이비드맥키미술관
비야 셀민스 , 〈거미줄 #1〉, 1999, 종이에 목탄, 56.5 x 64.9cm,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

흔들리는 뱃머리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바다의 굽이치는 파도를 바라보는 나그네처럼, 사막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가없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조난자처럼, 거미가 떠나고 없는 낡은 거미줄과 같은 덧없는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봉우리와 골짜기가 없다면 산이 아니고, 바람에 이는 파도가 없다면 바다가 아닐 것이다. 천 개의 기쁨과 만 개의 슬픔이 없다면 살아있는 삶이 아닐 것이다. 삶이라는 바다에도 상처와 고통의 풍랑이 매 순간 일렁인다. 살면서 시련의 파도가 몰아칠 때면, 셀민스의 그림들 앞에서 마음 깊은 곳의 침묵과 고요히 마주하고 싶어진다.

양끝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리니 중도(中道)엔들 어찌 안주하랴.
물이면 물, 산이면 산, 마음대로 쥐고 펴면서
저 물결 위 흰 갈매기의 한가로움 웃는다.

태고 보우(1301~1382) 선사 / '어디에 머물리요(何住)'

인과선원 정덕스님

얼마 전 초하의 여름빛이 고운 6월에 정덕(正德)스님의 구순 기념 미술 전시회가 인사동에서 있었다. 직업 화가도 구순 기념 작품전시가 드물텐데 스님께서 구순에 작품전시를 하신다? 사진으로 뵙는 외모에서도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당당한 풍채에 맑은 안색, 카랑한 목소리까지 누가 구순 노인이라 하겠는가? 물러나 앉은 안존함보다 아직도 당당히 삶과 대면하는 결기가 보였다. 스님의 그림에서도 그 선명함은 그대로 드러나 삶을 찬미하고 붓 가는 대로 펼쳐 보이는 자유로움이 가득하다. 화가의 눈과 의식세계를 통해 창조된 세상을 잠시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스님의 작품은 민화의 주요 소재인 꽃과 새를 다루고 있지만 민화의 전통 채색기법을 따르진 않고, 또 선서화라고 하기에는 색상이 매우 다채롭다. 스님이 만든 세상에는 천진한 즐거움과 단순해서 오히려 집중하게 만드는 생동감이 있었다. 2019년 선물로 받은 종합 검진에서 뇌의 혈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소견서를 들고 찾아다니다 결국 뇌에 시술을 하기로 결정되어 입원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죽음을 앞두고 해야 할 일부터 생각했다. 어떤 일을 해야 좋을까? 선학원의 도제 장학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마지막 발원이 무작정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투병 생활 중에 그린 그림 70점을 모아 생애 첫 전시인 '마음그림전'을 열었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발원대로 도제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이후 밤을 잊고 그린 그림 수 백장 속에서 다시 70점을 골라내어, 3년 만에 두 번째로 구순 기념 전시회를 열었다. 그것이 올 6월이다. 이번에도 판매 수익금 전액을 선학원의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노후복지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정덕 스님은 1933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나 전남 강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젊어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불가사의한 임사체험을 했다. 사흘 만에 살아나면서 반드시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인과를 철저히 깨닫고 오셨다 한다. 인과는 절대로 일보도 촌보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나 자신에서 비롯한다는 인과의 이치를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노원구 월계동에 스님이 계시는 곳도 '인과선원'이다. 1981년 이천동에 있던 인과원을 정리하고 인연이 닿아 가정집을 인수하여 법당을 만들고 사찰로 단장했다. 해를 넘겨서도 한창 불사 중이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일본의 유명한 진언종의 '하나다니'라는 스님이 "이곳은 인연있는 사람만 머물 수 있는 자리이니 인연이 없으면 머물지 못한다. 이 터에서 살면 베풀 수 있는 공덕이 따르니 절대 떠나지 말라"고 했다 한다. 그렇게 도량을 정비한 인과선원은 이제 40년째 그 자리를 지키며 도심 포교당으로 법등을 면면히 이어나가고 있다. 인과선원의 경내에는 특이하게도 용을 타고 계신 관세음보살입상이 모셔져 있다. 도량을 정비하고 불보살님을 모셔야 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내던 때였다. 선원을 찾아온 누구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던 스님은 어느 날 빈객(貧客)에게 돈 만원을 쥐어줬는데 계룡산 국사봉에서 왔다며 '스님이 찾는 부처님은 용을 타고 있는 기룡관음'이라고 일러주는게 아닌가. 그래서 전국을 돌며 기룡관음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스님이 꿈에 본 대로 그림을 그려 석재소에 조각을 맡기려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던 앳된 청년에 왠지 마음이 가 직접 조각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석재소사장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청년에게 맡기는 것을 반대했으나 스님은 어떻게 조각상이 나오든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굳이 청년에게 의뢰했다.

청년 석공은 스님의 말에 힘을 얻어 한 달 보름 만에 기룡관음을 완성해 내었다. 단단한 화강암을 쇠메로 쳐 큰 형태를 잡고 정으로 쪼고 도드락 망치로 평탄하게 면을 만든 후 날망치로 잔다듬을 하는 청년의 수 천 번 수 만 번의 손길이 보이는 듯하다. 부드럽게 흘러내린 천의와 섬세한 손 모양을 보고 누가 미숙한 석공을 떠올리겠는가. 정성과 인연이었다. 그래서 흔치 않은 기룡관음이 인과선원에 있다.

스님은 세납 40세에 수덕사 견성암으로 출가하여 1979년 해인사 일타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하고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도 관심이 많아 1990년 '자비의 전화((02)737-7374)'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후원하며 불교계의 대표적인 전화상담기관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2대, 3대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불모지와 다름없던 '불교 상담' 분야를 20년 넘게 개척하며 발전시켜왔

다. 2000년에는 조계종 산하 불교상담개발원으로 격상시키고 자비의 전화는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교상담기관으로서 사회공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자 서울시 인가 사단법인으로 2005년 등록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7년 불교상담대학, 2009년 불교상담대학원을 설립하여 조계종 인정의 '불교상담심리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연간 3,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상담 전문 기술을 갖춘 불교상담가들이 누적 추산 6만명이 넘는 내담자들에게 상담과 마음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화 상담 이외에도 사이버 상담, 개인 심리상담, 면접 상담,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성 상담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을 꾀하면서 외연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 지혜와 자비가 무궁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갈등과 고민에 빠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며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연결해주는 상담은 현대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대에 화현한 보살도가 아닐까. 이를 인정받아 스님은 2008년에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정덕스님은 무주상보시, 즉 기부천사로도 유명한데 2013년에 동국대 중앙도서관 도서 구매기금으로 3천만원을 기부하였고 '선학원 노후복지기금' 1억 원 출연을 약정했으며, 그림 작품 판매액은 계속 전액 보시하고 있다. 다시 인과를 말씀하시며 "내 복주머니를 아주 크게 만들려고 그래. 고 이병철회장보다도 큰 복주머니를 만들겠다고 발원했거든." 자리를 마무리하며 불교여성개발원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여쭈었다. 역시 인과와 회향이었다. 행복은 선업을 짓는 순간에, 공덕을 짓는 순간에 다가온다며 자신의 삶은 이웃에게 베풀고 행복을 찾아주는 후회없는 삶이었다고 밝은 얼굴로 말씀하신다. 돌아보고 회한없는 삶,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감, 부끄러워졌다.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스님은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다.

참고자료: [불교신문3242호/2016년10월22일자]
서울=연합뉴스, 2013-08-06
불교닷컴(http://www.bulkyo21.com)

부처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내 맘이 아프면 부처님 마음도 아프다. 김무성

이번 호에는 6차 108인 김무성 강원지부 고문을 소개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김무성 고문이야말로 원주의 여성불교를 오늘의 반석에 올려놓은 장본인이자 조용한 카리스마로 조직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데 타고난 능력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의 가족 중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생겨서 혹여 폐를 끼칠까봐 사무국에 질문지를 드리고 녹음을 부탁드렸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전화통화로 진행했다. 정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일까? 올해 85세의 연세가 무색하게 어떤 질문을 던져도 명확하고 또렷하게 설명해주셔서 놀랍고 감사했다.

유년기의 추억, 불교와의 인연

저는 1938년 강원도 원주 문막에서 4남매의 막내이자 유복녀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아버지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평소 『삼국지』와 『홍루몽』을 즐겨 읽고 뛰어난 서예 솜씨로 마을 사람들의 편지를 도맡아 써주실 정도의 문인 풍모를 지닌 어머니와 따뜻한 형제자매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습니다. 마침 마을에는 법당을 짓고 사시는 어떤 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쌀 등의 소소한 보시를 하셨고 어린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보살님을 뵙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은 저 아이가 단명할 운명이니 누군가의 수양딸로 이름을 올려두라고 어머니께 당부하셨답니다. 결국 마땅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던 저의 어머니께서는 그 보살님에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활에 변화가 온 것은 없었지만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기왕이면 보살님 절에 부처님 다기물 올리는 일을 하면 어떻겠나 하셔서 100일간 정성껏 샘물을 떠다가 다기물을 올렸습니다. 그 때는 불교를 잘 몰랐지만 그런 일들이 은연중 저를 불교로 향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아들의 잔병이 치악산 상원사와의 인연으로 이어지다

저는 대학을 다니고 사회 활동도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그 보살님께서 이 아이에게 첫 번째 혼담이 오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면 좋을 것이라는 말을 어머니께 했다고 합니다. 마침 훗날 저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들의 배필감을 찾고 있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며 몰래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살펴보고 가셨습니다. 당시 저의 남편(현 원주불로병원 병원장) 될 사람은 경희대학교 한의대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이었는데 당신 모친의 명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저와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에 가겠다는 욕심으로 결혼에는 관심조차 없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 남성은 계속 저를 쫓아다녔고 급기야 아직 학생신분이었던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첫아들을 낳았습니다.

한없이 사랑스러운 첫아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설사를 달고 살다보니 한참 토실토실할 아이가 뼈만 앙상했고 백방으로 애를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아과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사람 노릇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한편, 당시 저의 시어머니는 늘 속병을 달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주위에서 치악산 상원사에 훌륭한 분이 있으니 한 번 만나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분은 바로 이후 안양 한마음선원을 지으신 대행스님이셨습니다. 당시 스님께서는 출가 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불자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대행스님께서는 저의 시어머니를 보시자 대뜸 지금 시급한 건 당신이 아니고 당신 손자이니 손자 기도를 해야지 당신 기도가 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더랍니다. 과연 제가 아이를 업고 상원사에 가서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마침내 저와 상원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대행스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 자네는 내가 여기를 떠나도 상원사를 다녀야 해!” 그때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상원사를 잘 지켜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 후 오랫동안 저는 상원사 신도회장을 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인연입니다.

상원사의 역사와 함께하며 원주 여성불자 모임을 활성화하다

저는 지금도 상원사에 가면 눈물이 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눈물이 흐르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제 나이 38살부터 52살까지 상원사 신도회장 14년을 하면서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

불상을 훔쳐가기도 하고 스님들이 제대로 절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절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사인 월정사에 세 번이나 찾아가서 상원사 좀 살려달라고, 좋은 스님 보내달라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훌륭한 스님이 오시면 절은 금세 활기를 얻어 살아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가 신도회장을 하는 동안 종 불사, 법당 불사, 부처님 불사, 일주문 불사 등을 모두 마쳤고 지금 상원사는 훌륭한 고공스님이 주지로 오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원주 도반들의 불심과 상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주시 불교여성회는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40여 명의 회원들은 단합된 힘으로 억척으로 노력해서 기금을 모아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월이면 보통 쌀 10가마를 사다가 가래떡을 뽑아 리어카로 원주 시내를 돌며 팔았고, 추석에는 송편, 보리가 나오는 철이면 보리쌀, 김장철에는 멸치젓, 새우젓을 팔았습니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회비만 갖고는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착같이 기금을 모아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왔고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냈으며 군부대에 먹을 것을 보내주고 사찰 불사를 했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이제 2013년도부터 불교여성회가 불교여성개발원 강원지부로 거듭나면서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은 불교여성회 회장을 9년, 부회장 하신 것까지 합하면 도합 15년을 하셨다고 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부처님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처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내 맘이 아프면 부처님 마음도 아프고, 내가 서글프면 부처님도 서글프시겠구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사를 하면서 생색내는 마음을 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 냈으니 네가 얼마 내라는 말도,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불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제가 자식에게 학비를 주면서 얼마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불사에 얼마를 냈다는 상을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상원사 사무장 말에 의하면 선생님께서는 상원사 일주문도 단독으로 하셨으나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현 주지이신 고공스님께서 일주문을 옮기려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안에 적힌 선생님 이름을 발견했다고 한다.)

저는 항상 밥솥을 열기 전에 합장을 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경 올립니다. 가족을 먹일 밥을 뜨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라고 합장한 후에 밥을 퍼옵니다. 합장하게 해 주시니 그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덕으로 저희 가족은 모두 복 받고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은 일도 끝에 가서는 다 원만하게 솔솔 풀립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고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녹두빈대떡

"할머니, 왜 이 콩에 설거지 비누를 넣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손녀의 놀란 질문에 "그것은 비눗물이 아니고 이 콩이 녹두인데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거품이 생긴 거야" 그릇 가득 품고 있는 녹두의 사포닌 성분을 접하는 조손 간의 대화를 전해 드렸습니다.

변화하는 계절에서 대우주의, 대자연의 신비를 느끼지만 그 속에서 나고, 자라 자태를 뽐내는 수많은 귀한 보물들, 모양과 맛과 성분이 천차만별인 먹거리들의 생명력의 위대함에 늘 감사하면서.... 연한 새싹 빛깔의 녹두에 대한 서론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녹두는 100가지 독을 치유하는 천연 해독제로 전해옵니다. 봄에 녹두를 섭취하여 겨울 동안 쌓인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녹두는 주성분은 탄수화물이지만 칼슘 함량이 높고, 인, 철등의 무기질, 비타민B1, B2, 비타민E, 비타민K 필수 아미노산 불포화지방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연의 함량이 높아 인슐린을 활성화하여 혈당조절에 효과적이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좋고 철, 카로틴이 풍부해 어린이 성장을 돕습니다.
대표적 음식으로는 녹두죽과 녹두 빈대떡을 들 수 있으며 녹두 빈대떡 만드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료: 녹두(10시간 이상 불린다), 돼지고기(가능하면 냉동아닌 무항생제 사용), 숙주, 김치, 양파, 대파, 마늘, 소금, 참기름, 생강즙)

만드는 방법: ① 불린 녹두를 씻으며 껍질을 제거한다.(껍질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조금 거칠 수 있음)
② 돼지고기는 작게 썰어 마늘, 생강즙, 참기름, 소금의 밑간을 해둔다.(간 고기도 괜찮음)
③ 숙주는 살짝 데쳐 꼭 짜서 손가락 마디 정도로 썬다.
④ 김치도 썰어서 꼭 짜둔다.
⑤ 양파, 대파는 적당히 채 썬다.
⑥ ②③④⑤에 마늘, 참기름, 소금을 넣고 주물러 섞어둔다.
⑦ 불린 녹두는 믹서기에 녹두를 넣고 믹서가 돌아갈 정도의 물만 넣고 간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갈되 너무 곱게 갈지 않아야 한다(우유같이 ×)

(Tip: 물을 많이 넣으면 반죽이 묽어지므로 조심한다.(녹두를 먼저 넣고 물을 조금만 넣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보충한다.)
※대개 쌀가루나 찹쌀가루를 섞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녹두만 해야 부드러우며 위의 방법이면 예쁘게 모양내어 부칠 수 있다.
※프라이팬에 부칠 때 주의사항: 기름을 넉넉히 넣고 부칠 때 꾹꾹 누르지 않고 한 면이 익으면 그냥 뒤집는다. 눌러 구우면 부드럽지 않게 된다.

냉동이나 저장 후 드실 때는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데워 굽는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대자대비 부처님
크신은혜 이공양
일체중생 발보리
마하반야 바라밀

여성불자108인회 제10차 108인 환영 워크숍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에 양평 코바코(kobaco) 연수원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이 주최하고 여성불자108인회(회장 양경윤)가 주관한 제10차 108인 환영워크숍이 열렸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용인 에버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에버랜드 측의 사유로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해와 부득이 양평 코바코 연수원으로 변경하였다. 코로나로 조용한 연수원이 전국에서 참석한 여성불자들의 반가운 목소리로 떠들썩하였다.

워크숍 주제는 '재가여성불자의 아름다운 동행'. 사회는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이고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중인 정대련 제6차 108인이 맡았다.
여성불자108인회에서 제10차 108인을 환영하는 워크숍은 여성불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친교,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에 따라 올해 코로나 중에도 작년 11월에 선정한 제10차 108인 환영식에 참석해주신 108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료집과 함께 나눠준 불교여성개발원에 궁금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점심 식사 전 사무국 직원한테 전해주고, 설문지도 꼭 작성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법문하시는 혜총스님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에 내빈으로 참석한 이인자, 김인숙, 이은영, 정경연, 노숙령, 김외숙 전임원장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어 김선옥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여성개발원이 올해 1월 28일 포교원으로부터 독립한 원년에 108인 들이 모여 스스로 결속을 다지면서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재정립의 시간이다."고 하자 참석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하였다.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

여성불자108인회 양경윤 회장은 환영사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108인회는 부처님과 만나고, 내가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 아래 새로운 삶의 도전을 준비하거나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서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단체가 되자.”고 하였다.
이어서 이영미 전 여성불자108인회 회장이 만든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이 그간 해온 활동을 소개한 영상을 보며 108인 회원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제10차 108인을 분야별로 무대로 모시어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에서 여성불자로서의 당당한 자부심과 수행과 봉사의 삶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의 법문은 불교여성개발원 제6대 이사장이신 혜총스님의 “승만부인의 대승정신으로”였다. 멀리 부산에서 새벽에 출발해 행사장에 도착한 혜총스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보며 청법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참석한 여성불자들에게 큰 감동이었다.

위도원공덕모 信爲道元功德母
장양일체제선법 長養一切諸善法
단제의망출애류 斷除疑網出愛流
개시열반무상도 開示涅槃無上道

믿음은 도의 으뜸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니
일체의 착한 법을 증장시키고,
의심의 그물을 끊고, 삼독의 흐름에서 나오게 하며,
열반과 무상도를 열어 보이느니라.
나~ 무~ 아~ 미~ 타~ 불~

그리고 다시 또 세 가지 큰 서원을 발원합니다.

자기소개하는 10차 108인

8차 108인

7차 108인

"① 이 진실한 서원으로 한량없고 가없는 중생을 안온하게 하려 하오니 이 선근으로써 어느 세상이고 날 적마다 정법의 지혜를 얻겠나이다. 이것이 첫째 큰 서원이옵니다.
② 제가 정법의 지혜를 얻은 뒤에는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연설하겠습니다. 이것이 둘째 큰 소원이옵니다.
③ 제가 정법을 받아 지니고는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보호하여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셋째 큰 소원이옵니다."

이 세 가지 큰 서원을 다시 발하자 부처님은 모든 보살들의 서원이 이 진실로 넓고 큰 원 속에 다 들어 있다고 찬탄하십니다.

역대 원장들과 혜총스님

5차 108인

9차 108인

6차 108인

4차 108인

1,2,3차 108인

확고부동한 믿음과 세 가지 큰 서원에 그날 법문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혜총스님은 법문 말미에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108인과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는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고 하여 겨울에 함께 다녀오기로 하였다.
워크숍 마무리하기 전에 포교원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계기와 독립 이후 불교여성개발원의 활동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 회원들이 질문하고 김선옥 원장, 김외숙 전원장. 이정호 부원장이 단상에 올라 답하였다. 여성불자108인들은 여성불자단체로서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불교여성개발원 본래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포교활동도 가능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앞으로 범종단의 불교여성개발원으로 성장해 가자는 다짐을 하였다.

노인자 다문화봉사단 단장의 태극권 지도, 김양희 위즈덤합창단 지휘자의 「당신이 오시는 날」에 이어 「오키도키」를 합창하였다.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제8차 안기순님의 『불교의 체계적 이해』 150권, 제9차 안혜경님 떡후원 그리고 전임원장들과 108인회 임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준 덕분에 워크숍을 성료할 수 있었다.
봄꽃과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좋은 계절에 여성불자들의 입담으로 밤을 새워도 모자랄텐데 정해진 일정에 맞추느라 차수별 모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수불스님과 함께 한 집중수행 체험기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불자들은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기 위해 수행에 매진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김홍근 교수님을 모시고 '황벽어록선해', '돈오입도요문론', '진심직설' 등을 공부했다. 현재는 '수심결(修心訣)'을 공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참선집중수행을 병행함으로서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참을 몸에 익히고 있다.
김홍근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수불 큰스님을 모시고 참선집중수행을 체험할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안국선원장이신 수불스님은 수십 년간 300여회의 간화선지도를 해오시면서 실로 많은 사람들을 눈뜨게 하셨고, 간화선 참구의 핵심인 화두를 걸어주시는 것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1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의 만만찮은 일정이었다. 참가자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고자 각오가 대단하였다. 여성개발원 근처에 숙소를 정하기도 하고, 1일 1식의 각오를 하는 등 미혹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각자의 것으로 붙잡고자 하였다.
'좋은 인연입니다'로 시작된 스님의 말씀은 거두절미 바로 화두참구방법으로 이어졌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화두에 집중시키기 위해 '볼록렌즈로 초점을 맞추듯 집중하라', '팽이를 잘 돌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치듯이 하라', '빠르게 흐르는 물위에서 공놀이 하듯이 공이 못 빠져 나가게 정신 집중하라' 등 주옥같은 말씀들을 하셨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드디어 화두를 주시는데, 손가락을 까딱하게 하시고 "뭐가 이렇게 하게 하는가?"가 주어졌다.
'누구나 쓰고 있는데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알기 위한 열쇠가 화두'라고 하셨다. 화두라는 열쇠로 일대사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그냥 둬라. 답만 찾아라', '머리로 찾지 말고 몸으로 찾아라', '풍선을 불어 터질 때까지 겁내지 말고 그냥 불기만 해라', '그냥 갑갑함을 가지고 몸으로 화두를 들어라', '화두를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한번 들면 끝

까지 가라' 같은 지침들을 폭포수처럼 쏟아 내셨다. 이끌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히 전해져 알고자 하는 마음을 극대화시켰다. 점차 갑갑함이 가슴을 조여 왔다. 정신적 벽에 부딪혔다. 이제 내면의 집중과 앉아 버티는 일만 남았다.

몇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지나갔다. 도반들의 열기가 후끈했다. 가끔 내면의 진동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도반들의 신음소리와 흐느낌 같은 나지막한 소음들이 열기를 더할 뿐이었다. 다리가 아파도, 졸음이 밀려와도, 화두가 들렸는지 번뇌에 빠졌는지 혼동되는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앉아버티었다. 김홍근 교수님을 위시한 호법 법사님들의 발걸음이 우리가 보호 속에 있음을 느끼게 했다. 어쨌든 각자 화두의 답을 찾고자 내면을 주시하면서, 용을 쓰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갔다.

스님께서는 매일 오셔서 우리가 퇴굴심 없이 화두에 몰두하여 익혀나갈 수 있도록 촌철살인의 법문을 하시면서, 질문도 받고, 참구과정에 변화를 체험한 도반들을 개별면담 하시기 시작하셨다.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당수가 마구니 방해를 받지 말라는 뜻으로 단호하셨지만, 참으로 자비롭게 이끌어주셨다. 스님과의 면담을 위해 자신 있게 일어서서 옆방으로 나가는 도반들은, 앉아있는 도반들의 부러움에 찬 눈길을 받았다. 이것 역시 답을 찾고자 내면으로 몰두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지금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 무엇이 '이렇게' 하게 하는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체험은 천차만별 다를 것이다. 내면으로의 몰두는 고요함 속에 성찰과 각성, 때로는 고요함이 격렬함으로 소용돌이치면서 상상치 못한 경계에 직면하여 본인의 업장과 씨름하기도 한다.

내 경우는 김홍근 교수님과의 공부과정에서 '그것'이 나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채는 체험을 한 바 있었다. 공부는 이제 시작임을 알기에 '그' 자리에서 현존감을 느끼며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나 역시 스님께 면담하러갔다. 몇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점검하시는데 '빨리 가서 공부하라'고 다시 보내거나, 다그쳐 물

으시며 법문을 해 주셨다. 나는 그때 들은 법문 가운데 '겸손하라', '시시비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새겼다. 평생 남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나의 전공이요, 잘났다는 '아상'은 나의 정체성이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하루에 두 번 스님께서 친히 오셔서, 퇴굴심 내지 않도록 법문으로 붙들어주시고 점검의 기회를 가졌다. 몇 차례씩 점검을 받으려고 들락거리는 도반들도 있었고, 아직 화두 참구 상황이 스님을 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 도반들은 분발심에 더욱 정진하는 모습이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고 각자의 공부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스님을 뵙고 나름의 각오를 다지는 모습들로 보였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다. 약속된 시간은 이렇게 오고야 만다. 그동안 잘 버텨왔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고, 보다 극적인 깨달음 없이 또 기회가 지나갔다는 아쉬움도 있고, 원래 공부는 이런 것이라며 편안하게 수용하는 마음도 있었다.

스님께서는 회향법문 시간에도 질문을 받으셨고, 마지막 점검도 해주셨다. 참으로 자상하셨다. '수행하려고 용기를 내어 어지간하다' 하시며 우리들과 불교여성개발원을 격려해 주셨다. '눈뜨려면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씀과 함께 '스승 없이 혼자 활구 들지 말라' 하셨다. '인연을 만나야 눈을 뜬다.' 하시면서 이번 집중수행을 주선한 김홍근 교수님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셨다. 우리는 이미 김교수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도반들임으로 큰 스님께서 그렇게 추천해 주시니 감사함을 확인할 뿐이다. 개인적으로 내 경우는 많은 스승을 거쳤지만, 김교수님을 스승으로 만난 인연을 최고의 복이라 여기며 환희하고 있다. 학문적 알음알이의 벽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지식인은, 언어도단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놀랍도록 풍부한 동·서양의 지식을 활용하여 언어도단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힘이 특별하시다. 더 이상 스승에 대한 의심이나 갈증은 없다. 오히려 그 대단한 열정을 따라가기 벅찰 뿐이니 오직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할 뿐이다.

김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부의 맥을 짚어주셨다. 부처님에서부터 28대 달마를 거쳐 6조 혜능을 거쳐 내려온 임제종 양기파의 선맥이 수불스님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씀이시다.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긍지를 되새긴다.

이번 일주일 집중수행에서 각자 체험은 다양할 것이다.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두 가벼워지고 맑아졌다. 가슴이 열렸으며 이제부터 수행문에 들었음을 알고 새롭게 발심한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 우리가 닦아가진 이 맑음은 어쩌면 한 경계일 것이다. 법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다고 하셨다. 교수님의 당부대로 공부의 체험에 집착하여 법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선택하여 나름의 한계를 극복해 본 우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 이끌어주신 김홍근 교수님, 호법법사님들 특히 요즘 어려움에 처한 불교여성개발원에 매일 두 번씩이나 직접 오셔서 단호하면서도 자상하게 미지의 내면세계를 체험하게 이끌어주신 수불스님께 큰 절 올린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 감사

원장 **김선옥**
6차108인, 전)한국불교연구원 이사

부원장 **양경윤**
5차 108인, 화가

부원장 **구완자**
6차108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부원장 **정대련**
6차108인,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부원장 **이정호**
2차108인,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수련감독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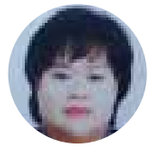
부원장 **원유자**
4차108인, 한국대학생불교총동문회 상임고문

부원장 **손미원**
9차108인, 엠테라파마 대표이사

이사 **강영자**
6차 108인, 조계사 의료팀장

이사 **김진**
2차108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김수현**
2차108인, 부산선양복지원 이사장,BTN 부산지사장



이사 **김옥주**
7차108인, 천매갤러리 대표

이사 **김인숙**
1차108인,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이사 **노인자**
5차108인, 종로 우슈협회 대표

이사 **민경란**
9차108인, 전)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사 **손재현**
2차108인, 동국대학교체육교육과(무용)교수

연구이사 **송현주**
8차108인, 순천향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사 **이영미**
6차108인, (주)세미성 대표이사

이사 **정영수**
4차108인, 전)안면암 운영위원장

이사 **정진희**
3차108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강사

이사 **최혜경**
2차108인, 정법신행회 회장

이사 **피상순**
3차108인, 우리사랑정신과의원 원장

이사 **형양자**
10차108인,나녹 북카페 대표

이사 **황경자**
8차 108인, 위즈덤합창단 단장

이사 **황남채**
1차108인, 판화가

이사 **황외숙**
4차108인, 전)서울교사불자연합회 회장

회계감사 **김영숙**
6차108인, 전)우리은행 지점장

사업감사 **조은수**
2차108인,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사)지혜로운여성 이사 · 감사

이사장 **김선옥**
6차108인, 전)
한국불교연구원 이사

이사 **강미중**
5차108인, 보문회 회장

이사 **김미연**
10차108인, (주)한국화정산기 이사

이사 **김숙애**
9차108인, 전)인천 석정중학교 교장

이사 **김연화**
6차108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사 **김외숙**
2차108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김은주**
10차108인, 김테일러 대표

이사 **김형인**
9차108인, 전)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이사 **남동현**
6차108인, 전)명문고등학교 교장

이사 **노숙령**
4차108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박원자**
5차108인, 작가

이사 **배영숙**
10차108인, 수서그린나츄라의원 원장

이사 **안기순**
8차108인, 약사

이사 **양현정**
8차108인,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원장

이사 **어순아**
9차108인,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사 **윤덕심**
9차108인, 전)방배중.고등학교 교사

이사 **윤정로**
9차108인, 울산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이사 **이명순**
2차108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사 **이순재**
8차108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사 **이영주**
7차108인, 이영주패션 대표

이사 **이영희**
8차108인, 영어강사(토익)

이사 **이재심**
8차108인, 명지대학교산업대학원객원교수

이사 **정은희**
6차108인, 골드금거래소 대표

이사 **조미환**
10차108인, 강릉 영동대학교 교수

이사 **조희금**
2차108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

이사 **한경란**
9차108인, 전)리더십과정 팀장

이사 **한정화**
9차108인, 까뜨리네뜨 대표

이사 **형난옥**
6차108인, 나녹 대표

회계감사 **김영숙**
6차108인, 전)우리은행 지점장

사업감사 **조은수**
2차108인,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종 포교원 독립 기자회견

1월 26일 오전 11시 지혜실에서 1월 28일 포교원으로부터의 독립 경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선옥 원장을 비롯해 108인회 회장, 부원장, 현 고문인 전임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입장을 발표하고 참석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불교여성개발원 독립에 대해 10개 언론사에서 기사로 다루어졌다. 세부내용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참고

○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정기이사회

2월 14일 오전 11시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 동일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1년 사업보고와 결산,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신임임원을 승인하였다.

○ 불교여성개발원 발전특위

2월 10일부터 운영위원회를 발전특별위원회로 대체하여 포교원으로부터 독립 후 5차에 걸쳐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정기운영위원회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지혜실에서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장, 부원장, 센터장, 차수장, 편집장이 모여 월 정기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최혜경 수익사업 팀장은 운영위원들에게 건강식 중식을 제공하여 운영위원들의 단합에 기여하였다.

○ 자비도량참법 100일 기도 회향과 반야심경 사경 100일 기도

2월 7일 김선옥 원장을 비롯한 회원 20명은 자비도량참법 100일 기도를 입재하여 5월 17일 선림사에서 회향하였다. 기도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하여 자비도량참법 한

품씩을 읽고 절하고, 기도 끝나면 단체 톡방에 기도 종료 보고와 함께 소감을 올려 서로의 정진을 도왔다. 특히 회향일에는 강원도에서 기도 동참하신 한정화(제9차 108인)님이 선림사에 쑥떡 공양을 올린 후 불교여성개발원 기도 동참자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나눠주라고 하는 소리 소문 없는 보시행에 모두 감동받았다.

이어 5월 18일 반야심경 사경 100일 기도를 입재하여 열심히 정진중이다. 자비도량참법 책 50권과 반야심경 사경집은 모두 지리산 선림사 보우법사님(제10차 108인)이 후원했다.

○ 우크라이나 유학생 장학금 전달식

4월 8일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한 우크라이나 유학생이 갖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유학생을 돕기 위한 성금 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시작한 지 7일 만에 113명이 참여, 26,240,000원을 모아 25명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전달하기로 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14명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 원씩을 장학생 온라인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 확인증을 넣어서 전달했고, 나머지 16명은 온라인으로 송금했다.

김선옥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러시아침공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의 선량한 국민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면서 우리나라도 과거 강대국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보고 전쟁의 상흔을 가진 나라이기에 오늘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남과 같지 않다고 했다. 인류의 보편적 정서이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강조하며 참석한 유학생들을 위로했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는 모금은 물론 장학생 선발까지 진두지휘한 김인숙 전원장, 우크라이나 대사 부인 Oksana Ponomarenko 여사 , 108인회 양경윤회장, 전회장 이영미, 이정호 부원장도 동참했다. 전달식에는 한국어는 박원자 명상리더십 센터장이, 영어는 정형은 제8차 108인 부

차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행사 유튜브 촬영과 편집은 이영미 108인회 전회장이 맡아 송출했다.

○ 군포교 자비나눔 선물 포장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군포교 자비나눔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15일간 진행하여 129명이 동참, 12,370,000원을 모아 13개 군부대에 선물 2,200세트를 보냈다. 5월 4일 포장일에는 22명의 자원봉사자가 한마음이 되어 숙련된 솜씨로 포장을 마쳤다.

또 봉사자들에게 승소 식권을 김인숙님, 부침개를 강영자님, 특별히 큰 후원과 함께 개발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먹거리를 최혜경님이 제공했다.

○ 청도 운문사 명성회주스님 친견

5월 6일 불교여성개발원 김선옥 원장과 이인자 초대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깊은 애정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 운문사 명성회주스님을 친견하고 독립 경위와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명성회주스님이 500만원, 운문사에서 500만 원을 불교여성개발원에 기부해 주었다. 회주스님께서는 힘든 시기에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앞으로 더 분발하기를 당부하며 격려해 주었다.

한편 명성회주스님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이인자 초대원장은 회주스님의 유발상좌가 되어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차담이 끝나고 회주스님은 손님 접대방으로 자리를 옮기어 평생 모아온 세계각국의 손수건, 부채 그리고 붓글씨 사경지를 보여주었다. 방문 일행은 구순이 넘는 세월 동안 촌각을 아끼며 늘 깨어있는 수행자 삶의 단면을 보게 되어 무척 감동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 (사)지혜로운여성 서울시장 표창장 수상

5월 7일 (사)지혜로운여성은 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인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원불교 10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있었고 이정호, 정대련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남동현, 노인자 이사 그리고 사기순 회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양성평등)알콩달콩-도란도란 가족명상

사)지혜로운여성은 2022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양성평등)알콩달콩-도란도란 가족명상'이 선정됐다.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을 목표로 코로나 이후 다양한 가족치유적 관점에서 성평등 이해 접근 가족명상 활동가 양성, 심신통합 가족명상으로 양성평등의 공동체 소통 활성화 현장 활동 전개, 다양한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개선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명상 워크숍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이후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6월부터 시작하였다.

○ 행안부 공익사업

불교여성개발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공익활동 지원사업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 이 선정되어 5.11일부터 7.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2명의 수강생이 총 12강을 수료하였다.

9월 3일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쓴 자서전을 출간할 계획이다.

○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5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엄마,아빠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웨딩데이' 아이들이 직접 청첩장도 만들고 음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 삼삼오오 모여 의논하고 계획을 세워 준비한 D-day 놀이로 통해 사랑으로 태어난 자신들의 소중함을 알게 된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 여성불자108인회(회장 양경윤, 5차 108인)

1월 8일 제4회 여성불자 108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이원표 8차 108인의 사회로 행사를 가졌다. 이날은 여성불자108인회 우수 108인으로 선정된 황순덕(5차), 남동현(6차)에게 순금 1돈이 들어간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제2회 올해의 스님 본원스님(봉정암 주지), 천도스님(백련사 주지_울주군 소재), 진원스님(수덕사 계룡시 복지관장), 고공스님(상원사 주지), 승원스님(백련사 주지_가평)을 선정하여 감사장과 부상으로 각각 1백만 원을 보시하였다.

한편 여성불자108인회 주관으로 4.20(수) 코바코연수원(양평)에서 10차 108인 환영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5시에 108인회 차수장과 차수 임원이 모여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월별 사업 평가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 제14회 자비나눔 바자

5.30(월)-31(화) 여성불자108인회 주관으로 나눔바자를 개최하였다. 첫날 오전 10시에 임원들을 모신 오프닝에는 김선옥 원장, 양경윤 회장의 인사말에서 108인회 전체가 반갑게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장을 통해 수익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하였다. 소중한 물품 기증을 해주신 동출스님, 최유정, 이영근, 이영미, 이영호, 김선옥, 황인자, 임수현, 황인자, 어순아, 김외숙, 홍경희, 김영희, 안미경, 노인자, 강경화(양경윤), 김정화(양경윤), 배영숙, 이윤희(기증 날짜순), 형난옥님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강원지원의 격려차 방문을 비롯하여 이순이님 떡후원, 임원들의 후원금 등 물품 기증은 물론 구입하고 후원해 주신 108인을 포함한 불자님들 덕분으로 바자가 무사히 끝났다.

총수익 22,468,801원 중 불교여성광장건립 11,234,400원, 지혜장학금 5,617,200원, 11차 108인 선정 사업비

5,617,200원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다.

○ 7차 여성불자108인회(차수장 이영주)

1월 23일 경기도 노고산 흥국사에서 2022년 첫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점심 공양 후 주지 철산스님의 법문과 흥국사 내 다원에서 7차 차담시간을 가졌다. 특히 1년 동안 7차를 잘 이끌어준 안애원 전 차수장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해 7차를 이끌어갈 신임 이영주 차수장과 최희영 총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7차 서옥영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회장이 다과 후원, 김명순의 보리박산 선물로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었다.

또한 7차 108인은 3.19-20. 안동선비마을로 힐링 연수를 다녀왔다.

○ 9차 여성불자108인회 (차수장 김숙애)

5월 20일 양평 상원사, 용문사를 참배하며 바자를 앞두고 9차 108인들의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16명의 108인회 회원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며 인문학 배양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가족지원센터(김성연, 10차 108인)

가족지원센터 내 한부모가족자조모임 '좋은벗'(리더 사기순)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22년 자조모임 운영기관에 선정되었다.

한편 가족지원센터는 종로구 가족센터와 협력해 공동육아 나눔터 프로그램인 "양육고민상담소" 운영을 지원한다. 영아기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양육자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 유아동의 발달과정

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 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상담사(창의앤심리연구소장 김지연)의 조언이 이뤄진다.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진단과 해소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그램은 3월 14일부터 매달 두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총 10차시 실시간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된다.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세대 초보엄마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교정교화센터(윤덕심, 9차 108인)

6월 25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고봉중고등학교 법당을 열어 교정교화센터에서 첫 법회를 열었다. 불교반 학생 16명이 참석하였고 신임 윤덕심 센터장은 법회 참석자에게 간식으로 치킨을 보시하였다.

○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진, 2차 108인)

불교여성연구소(소장 : 김진)는 2월 21일(월) 오후 8시 줌으로 불교여성연구소 1차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김진 소장과 계미향, 김혜령, 남부현, 안환기, 오기남, 최영희가 참여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불교의례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불교의례에 대한 범주화(생활기도, 관혼상제 등), 불교 교리 재해석을 통한 불교의례의 응용화 필요성, 생활기도 의례 체계화 작업의 필요성(장례, 생활기도 등), 불교의례 전문가 소개와 해당 학술자료를 소개했다.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이성운 지음), 『한국중세의 불교의례』(김종명 지음), 『한국불교의 일생의례』(구미래 지음) 등 불교의례 전문가 초청 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 명상리더십 센터(센터장 박원자, 5차 108인)

3월 29일 명상리더십센터 김홍근 교수 초청 강의 수심결-친절한 마음공부 시즌3이 오프라인(출석수업) 온라인(비대면 수업) 이원화 수업으로 시작하여 6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자비실에서 진행하였다. 교재는 『수심결-마음 닦는 요결』(보조 지눌, 오광익 저, 동남풍, 2017).
한편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까지 자율 실참에 회원에 한해 진행하였다. 아울러 5월13일(금)부터 16일(월) 3박 4일 동안 자비실에서 실시한 참선집중수행에도 45명이 참석하였다.

○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 노인자, 5차 108인)

2월 13일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온라인 줌으로 정기법회를 갖고 신임단장에 노인자를 추대했다. 지난 2년 동안 단장을 역임한 김상애 님에게는 금 한 돈의 옴(ॐ)자 메달을 선물로 증정했다. 노인자 신임단장은 지난 2010년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이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당시 실무를 담당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도움과 정서적 지원과 여성결혼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통한 행복증진에 노력한 바 있다.

6월11일과 12일 1박2일로 다문화 가족과 함께 봉사자들 포함 39명이 오대산 월정사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다문화가족의 요청으로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낙산사 홍련암과 해수관음상, 의상대를 거쳐 월정사에 도착하여 다함께 저녁예불을 드린 뒤 각자 조용히 침상에 들어갔고, 다음날 강명희 교수의 새벽명상과 식할스님의 전나무숲길 명상체험을 한 후 중대 상원사의 적멸보궁에 올라 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 위즈덤합창단(단장 황경자, 8차 108인)

2월 15일 김양희 지휘자가 첫 연습을 시작하여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으로 현재 12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4월 20일 10차 108인 환영워크숍, 5월 30일 나눔바자에서 축하공연을 하였다.

그리고 6월 21일 오전 10시 김포 여래사 개원 20주년 기념 법회와 아미타부처님 개금 점안식을 맞아 혜남 큰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하였다. 위즈덤합창단은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오늘은 기쁜날, 당신이 오시는 날에 축하 음성공양을 올렸다. 한편 위즈덤합창단은 단원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지혜실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
1시부터는 김옥경 7차 108인이 라인댄스를 지도하고 있다.

○ 김인숙(1차 108인)

성곡언론문화재단은 5월 중순 이사회를 열고 제16대 재단 이사장으로 김인숙 1차 108인,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되었다고 5월 29일 재단에서 보도자료로 밝혔다.

성곡언론문화재단은 고 김성곤 쌍용그룹회장께서 생전에 언론 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립하였다.

○ 전재성(7차 108인)

2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푸드경제신문(대표 전재성) 창간 12주년을 기념하여 '언론이 선정한 2022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 진명순(4차 108인)

2월 16일 소장하고 있던 책을 모두에게 오픈하여 미니도서관을 오픈하였다. 생활속의 〈명상실〉, 색채심리미술교실과 특강을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으로 초산마음문화원을 오픈하였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61-4 대하프라자 4층 402호

(지하철 장산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정도 해운대문화회관 건너편)

○ 조은수(2차 108인)

8월 15일(월)~ 19일(금)까지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불교학대회의조직위원장을 맡아 준비중이다. 세계불교학대회는 삼 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불교학 관련 최고의 학회로서 올해 이 년 연기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린다

○ 피상순(3차 108인)

피상순 경기도 여자의사회 회장이 6월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 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 형난옥(6차 10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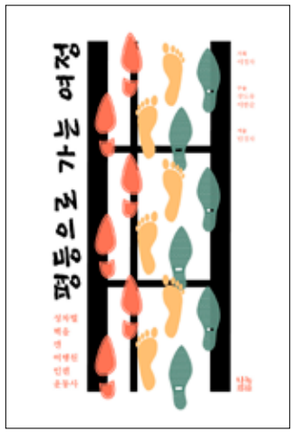
형난옥(나녹那碌 대표) 우바이예찬 편집위원장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민청갤러리에서 동강 권오창 화백의 〈전통어린이복식화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로 선정되어 진행하게 되었다.

동강 권오창 화백은 평생 전통 화법으로 역사 속 인물들을 그리며, 왕실과 반가의 복식에 담긴 정성을 탐구해 왔다. 화백은 빼어난 솜씨로 임금님 초상화를 17점이나 그리며, 틈틈이 우리 옷을 입은 어린이의 밝고 귀여운 모습을 화폭에 담는 데도 정성을 들였다. 올해 어린이날 100회를 맞이하여 나녹은 『전통어린이복식화』(권오창지음, 2022)를 출간했다. 성인 중심의 역사 인물에 치우쳤던 전통 인물 회화의 영역을 넓히고, 궁중과 반가를 망라하는 전통 어린이 복식의 재현 의미를 대중과 함께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

이번 전시에는 권오칭 화백의 '전통어린이복식화' 30점과 '재현전통복식' 30점을 전시하고 우리나라 마지막 왕자 영왕의 왕세자복과 덕혜옹주의 소례복을 입어볼 수 있게 하고 컬러링 체험도 할 수 있었다. 이후 천안 나녹북카페로 장소를 옮겨 앵콜 전시(2022.8.1.~12.30)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통어린이복식화展〉 포스터

또 『평등으로 가는 여정-성차별 벽을 깬 여행원 인권운동사』(이정자 기획, 장도송, 이한순 구술, 민경자 집필)를 드디어 출간했다. 1970년경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은행원이라는 사무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견디어야 했던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증언록이며 '여행원'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 '행원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분투했던 여자 행원들의 투쟁사이다. 여성차별이라는 불의에 저항하던 정의감, 후배를 향한 책임감, 여자 행원의 지위 향상과 국가 및 은행 발전에 기여하려는 열정과 헌신, 여성들 간의 우정들까지, 그 여정이 생생하게 녹아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2.1.1~2022.6.3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김선옥	4,000,000
강미중	500,000
강영자	1,200,000
김 진	1,200,000
배영숙	1,200,000
손미원	1,000,000
손재현	1,200,000
송현주	1,200,000
이영미	1,200,000
이영주	1,200,000
이정호	1,000,000
정영수	1,200,000
최혜경	600,000
황외숙	600,000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김선옥	3,000,000
김미연	400,000
김연화	600,000
김외숙	1,200,000
노숙령	1,200,000
민경란	600,000
박원자	400,000
성낙윤	100,000
양현정	600,000
윤덕심	900,000
윤정로	1,200,000
이명순	600,000
이영희	200,000
정은희	200,000
조미환	500,000
형난옥	300,000

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

강미중(5차)	1,000,000
강설미(7차)	1,000,000
권지혜(7차)	1,000,000
김경랑(10차)	1,000,000
김귀순(7차)	1,000,000
김미연(10차)	1,000,000
김미원(9차)	1,000,000
김복순(2차)	1,000,000
김선옥(6차)	1,000,000
김숙자(3차)	1,000,000
김순남(10차)	1,000,000
김승목(3차)	1,000,000
김양식(1차)	1,000,000
김양식(1차)	1,000,000
김영순(3차)	1,000,000
김외숙(2차)	1,000,000
김용숙(7차)	1,000,000
김윤옥(7차)	1,000,000
김은희(4차)	1,000,000
김일명(7차)	1,000,000
김주현(8차)	1,000,000
김지영(5차)	1,00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김현지(7차)	1,000,000
남상민(1차)	1,000,000
리영자(1차)	1,000,000
문명하(5차)	1,000,000
박강자(6차)	1,000,000
박경자(5차)	1,000,000
박근연(1차)	1,000,000
박명혜(2차)	1,000,000
박정애(8차)	1,000,000
박종균(6차)	1,000,000
박찬재(9차)	1,000,000
백경임(1차)	1,000,000
사기순(4차)	1,000,000
서혜경(1차)	1,000,000
성민선(3차)	1,000,000
손미영(7차)	1,000,000
손미원(9차)	1,000,000
손인희(9차)	1,000,000
송현주(4차)	1,000,000
신용현(9차)	1,000,000
안애원(7차)	1,000,000
양숙자(5차)	1,000,000
양채화(7차)	1,000,000
어순아(9차)	1,000,000
엄희원(10차)	1,000,000
오응옥(3차)	1,000,000
우인순(8차)	1,000,000
윤정로(9차)	1,000,000
이태영(9차)	1,000,000
이경자(5차)	1,000,000
이계경(4차)	1,000,000
이두영(10차)	1,000,000
이명숙(7차)	1,000,000
이순이(3차)	1,000,000
이연숙(1차)	1,000,000
이원표(8차)	1,000,000
이윤희(10차)	1,000,000
이인옥(3차)	1,000,000
이인자(2차)	1,000,000
이재심(8차)	1,000,000
이주연(6차)	1,000,000
이주현(4차)	1,000,000
이현아(10차)	1,000,000
임현주(7차)	1,000,000
장미숙(9차)	1,000,000
전나미(7차)	1,000,000
전영자(3차)	1,000,000
정명자(8차)	1,000,000
정미령(8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조정현(8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최해숙(4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

강명희(6차)	120,000
강옥란(7차)	60,000
강옥희(7차)	60,000
강희경(10차)	60,000
계미향(8차)	60,000
김경숙(5차)	30,000
김기순(8차)	20,000
김대원화(6차)	50,000
김명숙(7차)	20,000
김문희(9차)	60,000
김미경(10차)	30,000
김미숙(8차)	20,000
김선연(9차)	60,000
김성연(10차)	60,000
김양희(6차)	60,000
김영미(6차)	60,000
김영숙(6차)	60,000
김영숙(10차)	20,000
김영희(8차)	20,000
김옥주(7차)	60,000
김윤희(10차)	10,000
김은주(10차)	60,000
김청옥(7차)	60,000
남동현(6차)	60,000
남동화(3차)	60,000
노윤희(7차)	20,000
노희순(3차)	30,000
문보경(6차)	60,000
박귀원(8차)	60,000
박정희(6차)	60,000
배순자(6차)	60,000
배정선(9차)	60,000
변경이(8차)	70,000
서은숙(6차)	60,000
손영신(9차)	60,000
손인애(9차)	70,000
송종옥(9차)	60,000
송주의(9차)	30,000
송혜진(8차)	60,000
신재영(6차)	60,000
안기순(8차)	60,000
안인자(9차)	60,000
안정선(10차)	60,000
양경윤(5차)	60,000
양영미(10차)	60,000
양외금(6차)	10,000
오지연(4차)	60,000
오현경(9차)	60,000
유은주(6차)	60,000
유진희(6차)	60,000
윤정선(6차)	60,000
윤효영(8차)	60,000
이기향(1차)	180,000
이명숙(9차)	20,000
이문희(2차)	20,000
이수진(10차)	60,000
이연수(6차)	60,000
이영희(8차)	60,000
이은희(9차)	70,000
이정기(10차)	30,000
이지원(8차)	60,000
이현영(9차)	60,000
이혜숙(9차)	60,000
임상연(9차)	60,000
임연선(6차)	20,000
임영희(8차)	60,000
임정애(6차)	60,000
장원자(8차)	10,000
장정화(9차)	200,000
장흔성(10차)	60,000
정은희(6차)	50,000
전영희(9차)	100,000
전영숙(8차)	60,000
정재희(9차)	100,000
정지원(7차)	60,000
정혜정(9차)	60,000
정희숙(7차)	20,000
조경숙(6차)	70,000
조귀자(9차)	60,000
조명숙(8차)	60,000
조은수(2차)	60,000
조정숙(6차)	60,000
조창분(7차)	20,000
조현숙(10차)	60,000
주찬옥(6차)	60,000
최복란(8차)	60,000
최은숙(8차)	30,000
최은주(7차)	20,000
최은희(9차_부산)	60,000
최은희(9차_제주)	60,000
최희영(7차)	60,000
한경란(9차)	60,000
한주영(10차)	60,000
한채화(9차)	70,000
한혜원(7차)	60,000
형양자(10차)	50,000
홍경희(2차)	40,000
황남채(1차)	60,000
황명자(6차)	60,000
황선화(5차)	60,000
황수남(9차)	60,000
황치석(10차)	50,000

여성불자108인 회비 (온라인)

강경숙(5차)	100,000
고외숙(7차)	100,000
권봉숙(4차)	100,000
김광숙(4차)	100,000
김만옥(8차)	100,000
김선화(10차)	100,000
김성연(10차)	100,000
김순철(6차)	120,000
김여주(10차)	100,000
김영미(10차)	100,000
김옥숙(10차)	100,000
김태자(8차)	100,000
김형인(9차)	10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2.1.1~2022.6.30)

박경임(6차)	100,000
박정하(10차)	100,000
배영숙(10차)	100,000
신경숙(9차)	100,000
신숙례(6차)	100,000
안기순(8차)	100,000
오기남(10차)	100,000
오주연(10차)	100,000
옥복연(5차)	100,000
윤혜경(10차)	100,000
이계자(10차)	100,000
이대순(10차)	30,000
이영근(5차)	100,000
이영주(7차)	100,000
이주(4차)	120,000
이지원(9차)	50,000
임순덕(5차)	100,000
정유진(3차)	100,000
조명희(10차)	100,000
조은성(10차)	100,000
천희영(10차)	100,000
최병순(10차)	30,000
황남채(1차)	100,000
황영애(10차)	50,000
황치석(10차)	100,000

회원회비 (CMS)

강희출	30,000
고은자	60,000
권은랑	60,000
권화순	30,000
김보현	60,000
김성은	30,000
김순자	30,000
김어석	90,000
김연금	60,000
김연희	60,000
김영희	60,000
김오복	50,000
김윤경	60,000
김윤미	20,000
김정희	60,000
김주연	60,000
김학엽	30,000
김현숙	60,000
김현숙1	5,000
나경윤	30,000
도인희	60,000
무관스님	60,000
박말희	30,000
박문숙	60,000
박복순	30,000
박영재	60,000
박인순	30,000
박종균	20,000
박지선	60,000
박홍우	60,000
박회상	60,000
본각스님	120,000
서정애	50,000
서혜정	60,000
선문스님	60,000
손송자	60,000
송만순	120,000
신미옥	30,000
신용애	60,000
안미경	60,000
안석자	60,000
안정옥	60,000
연명순	60,000
왕민영	60,000
원유자	60,000
유명숙	60,000
유현영	20,000
윤복기	10,000
윤용옥	30,000
이강희	30,000
이미선	180,000
이범순	60,000
이송화	60,000
이숙자	60,000
이숙희	30,000
이승자	60,000
이영재	60,000
이윤구	60,000
이윤희	70,000
이재영	60,000
이정애	60,000
이정호	60,000
이종열	60,000
이화선	60,000
임정순	30,000
임주연	60,000
임태숙	60,000
자우스님	60,000
장길수	60,000
장영선	60,000
장윤실	60,000
전미옥	50,000
정명모	60,000
정숙인	180,000
정원일	60,000
정주현	60,000
정희자	30,000
조귀자	60,000
조문경	60,000
조여경	60,000
조우상	60,000
조정숙	300,000
진승연	60,000
진여스님	180,000
진여스님(홍숙기)	60,000
최순진	60,000
최비안	60,000
최은미	20,000
표명희	60,000
하양자	60,000
한승우	60,000
한은해	40,000
허난영	60,000
허영숙	60,000
형난옥	60,000
혜진스님	20,000
홍점례	30,000
황선미	60,000
황유진	60,000

회원회비 (온라인)

김연희	60,000
변혁주	10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CMS)

강인영	60,000
김귀순	150,000
본각스님	180,000
손미원	300,000
이영주	2,000,000
정대련	840,000
조재엽	180,000

여성광장건립 (불교르네상스의꿈2) _ 약정 잔액

김인숙(전원장)	10,000,000
봉은사	5,000,000
오정은(일반)	100,000
이애영(일반)	500,000
이인자(2차)	1,000,000
이정숙 청헌자수연구소(광고)	500,000
조계사	1,000,000
조정숙(6차)	1,000,000

고성,울진 산불피해 성금 모금

강미중(5차)	100,000
강영자(6차)	50,000
강옥란(7차)	50,000
고경효(10차)	50,000
고용심(일반)	50,000
고은자(10차)	50,000
구경모(회원)	50,000
구원모(회원)	50,000
권선(9차)	50,000
권지혜(7차)	50,000
김남희(회원)	30,000
김만옥(8차)	50,000
김명국(명상강의 수강생)	10,000
김명순(7차)	50,000
김미연(10차)	100,000
김보원(9차)	50,000
김복순(회원)	50,000
김선연(9차)	50,000
김선옥원장(6차)	100,000
김선화(10차)	50,000
김숙애(9차)	100,000
김순자(회원)	50,000
김여주(10차)	200,000
김연희(회원)	30,000
김영미(10차)	100,000
김영희(9차)	100,000
김외숙(2차)	100,000
김인숙(1차)	200,000
김정희(9차)	50,000
김주현(8차)	50,000
김진여심(5차)	50,000
김형인(9차)	50,000
남동현(6차)	100,000
노숙령(4차)	1,000,000
류인숙(5차)	50,000
민경란(9차)	100,000
민태영(6차)	50,000
박귀원(8차)	100,000
박도화(9차)	50,000
박상신(4차)	100,000
박원자(5차)	50,000
박종덕(5차)	100,000
서분옥(명상강의 수강생)	50,000
서우림(5차)	100,000
서혜정(회원)	30,000
성민선(3차)	100,000
성영란(10차)	100,000
손미원(9차)	300,000
손인희(9차)	50,000
송종옥(9차)	50,000
송주의(9차)	50,000
신경숙(9차)	50,000
신용현(9차)	50,000
안기순(8차)	100,000
안은덕(8차)	1,000,000
양경윤(5차)	100,000
양정희(9차)	50,000
양현정(9차)	50,000
어순아(9차)	70,000
오기남(10차)	100,000
오지연(4차)	100,000
우주연(일반)	100,000
유현주(7차)	50,000
원유자(4차)	50,000
유명숙(회원)	100,000
윤덕심(9차)	50,000
윤연숙(회원)	50,000
윤정로(9차)	100,000
이도엽(일반)	100,000
이명숙(6차)	50,000
이명순(6차)	100,000
이봉휴(9차)	100,000
이순이(3차)	1,000,000
이순재(8차)	100,000
이영미(6차)	50,000
이영이(10차)	50,000
이영주(7차)	100,000
이인자(2차)	100,000
이자옥(10차)	10,000
이정순(3차)	100,000
이정호(2차)	100,000
이주연(6차)	30,000
이지원(9차)	50,000
이추경(회원)	30,000
이춘기(일반)	50,000
이태영(10차)	10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2.1.1~2022.6.3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현주(7차) 100,000
장선옥(1차) 100,000
전영숙(8차) 50,000
전재성(7차) 100,000
정대련(6차) 100,000
정명모(회원) 10,000
정연재마(회원) 30,000
정유진(3차) 50,000
정은희(6차) 50,000
정이연(9차) 50,000
정진희(3차) 50,000
정진희(3차) 100,000
정혜정(9차) 50,000
조명숙(8차) 50,000
조문경(사무국) 30,000
조미환(10차) 50,000
조은경(10차) 100,000
조은수(2차) 100,000
조재란(10차) 100,000
조정숙(사무국) 50,000
조희금(2차) 100,000
진명순(4차) 50,000
최경분(9차) 50,000
최비안(회원) 50,000
최혜경(2차) 100,000
최희섭(일반) 100,000
파상순(3차) 1,000,000
하봉자(10차) 200,000
한경란(9차) 100,000
한채화(9차) 50,000
허진복(일반) 20,000
형난옥(6차) 50,000
황경자(8차) 100,000
황남채(1차) 100,000
황선미(사무국) 30,000
황선화(5차) 100,000
황수경(3차) 100,000
황외숙(4차) 100,000

우크라이나 유학생 장학금 모금

권대옥(김선옥)
1,000,000
김만옥(8차) 50,000
김숙애(9차) 100,000
김은주(이영미) 100,000
김해주(일반) 100,000
배경숙(1차) 100,000
배영숙(10차) 200,000
보우법사(10차) 300,000
이경희(일반) 200,000
이지호(홍라희)
5,000,000
정유진(3차) 50,000
조명숙(8차) 100,000
조현찬(김인숙)
1,000,000
홍원숙(8차) 100,000
강미중(5차) 200,000
강영자(6차) 50,000
강옥란(7차) 50,000
강춘기(10차) 30,000
고경효(10차) 100,000
고은자(10차) 50,000
권선(9차) 50,000
권지혜(7차) 50,000
김경순(이영미) 80,000
김대원화(6차) 30,000
김명혜(김인숙) 100,000
김미연(10차) 100,000
김선옥(6차) 100,000
김옥주(7차) 50,000
김옥희(5차) 50,000
김외숙(2차) 200,000
김인숙(1차) 1,000,000
김점란(6차) 100,000
김진(2차) 100,000
김진여심(5차) 50,000
김형인(9차) 50,000
노숙령(4차) 500,000
노인자(5차) 100,000
노재헌(김인숙)
2,000,000
류인숙(5차) 50,000
문보경(7차) 30,000
박귀원(8차) 100,000
박기옥(10차) 100,000
박순애(김인숙) 110,000
박종덕(5차) 100,000
백선이(김인숙) 50,000
서혜경(1차) 200,000
설희야(김인숙) 100,000
성민선(3차) 100,000
손연욱(정대련) 100,000
손인희(9차) 50,000
송광자(김인숙)
2,000,000
송길자(김인숙)
1,000,000
송주의(9차) 50,000
신명(2차) 100,000
안기순(8차) 100,000
안미경(회원) 100,000
안은덕(8차) 300,000
양경윤(5차) 100,000
양현정(9차) 50,000
어순아(9차) 50,000
오미정(10차) 50,000
오지연(4차) 100,000
원유자(4차) 100,000
유갑순(8차) 100,000
유명숙(회원) 50,000
윤덕심(9차) 50,000
윤정로(9차) 200,000
이금주(김인숙) 50,000
이명숙(7차) 50,000
이명순(2차) 200,000
이범순(회원) 100,000
이순이(3차) 1,000,000
이순재(8차) 100,000
이영미(6차) 50,000
이영이(10차) 50,000
이영주(7차) 100,000
이유순(원유자) 300,000
이은영(1차) 50,000
이인숙(1차) 50,000
이인자(2차) 100,000
이자옥(10차) 10,000
이정호(2차) 200,000
이종은(김인숙) 200,000
이주연(6차) 30,000
이지윤(정대련) 500,000
이혜산(2차) 100,000
장동우(김인숙)
1,000,000
장병욱(김인숙) 200,000
장용선(9차) 200,000
장정윤(김선옥) 100,000
전영숙(8차) 50,000
전재성(7차) 100,000
정경연(1차) 200,000
정대련(6차) 1,000,000
정진희(3차) 50,000
정형은(8차) 50,000
조규호(김인숙) 50,000
조명숙(8차) 100,000
조성교(회원) 100,000
조재란(10차) 100,000
조정숙(사무국) 20,000
지성배(김인숙)
1,000,000
최비안(회원) 50,000
최성은(2차) 100,000
피상순(3차) 1,000,000
하수경(1차) 50,000
한말숙(황수경) 100,000
한봉주(김인숙)
3,000,000
한채화(9차) 50,000
형양자(10차) 50,000
홍라진(김인숙) 50,000
홍설빈(이영미) 50,000
황경자(8차) 100,000
황남채(1차) 100,000
황수경(3차) 300,000
황영애(10차) 100,000
황외숙(4차) 100,000
황치석(10차) 50,000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선물 모금

강미중(5차) 100,000
강부자(1차) 100,000
강춘기(10차) 30,000
권승오(9차) 50,000
김경량(10차) 50,000
김경애(일반) 50,000
김경자(일반) 50,000
김경진(10차) 50,000
김국자(일반) 100,000
김만옥(8차) 50,000
김미연(10차) 50,000
김보원(9차) 50,000
김상리(9차) 50,000
김선옥(6차) 300,000
김숙애(9차) 50,000
김순자(일반) 50,000
김여주(10차) 50,000
김영숙(2차) 50,000
김옥경(7차) 50,000
김옥숙(10차) 70,000
김옥희(5차) 50,000
김외숙(2차) 200,000
김용숙(7차) 100,000
김용숙(10차) 50,000
김인숙(1차) 500,000
김재란(7차) 100,000
김정희(9차) 50,000
김주현(8차) 50,000
김지영(5차) 50,000
김진(2차) 50,000
김진여심(5차) 50,000
김형인(9차) 50,000
날마다좋은날(윤영단)
200,000
남동현(6차) 100,000
노숙령(4차) 500,000
노인자(5차) 50,000
류인숙(5차) 50,000
문보경(6차) 30,000
민경란(9차) 50,000
박귀원(8차) 100,000
박선미(5차) 50,000
박원자(5차) 100,000
박은주(1차) 20,000
박정화(일반) 50,000
박지선(10차) 30,000
배순자(6차) 100,000
범수엄마(김인숙)
100,000
사기순(4차) 50,000
서분옥(일반) 50,000
서혜경(1차) 200,000
성민선(3차) 50,000
성영란(10차) 50,000
손송자(회원) 50,000
손인희(9차) 50,000
송영숙(8차) 100,000
송재영(이명순뮤)
100,000
송현주(4차) 100,000
신경숙(10차) 50,000
안기순(8차) 100,000
안은덕(8차) 100,000
양경윤(5차) 100,000
양정희(9차) 50,000
양채화(7차) 100,000
양하영(8차) 100,000
양현정(9차) 50,000
어순아(9차) 50,000
오현경(9차) 50,000
왕정임(5차) 50,000
원유자(4차) 100,000
윤덕심(9차) 50,000
윤정로(9차) 5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2.1.1~2022.6.30)

이명숙(7차) 50,000
이명순(2차) 100,000
이봉휴(9차) 50,000
이숙자(6차) 50,000
이순이(3차) 500,000
이순재(8차) 100,000
이영미(6차) 50,000
이영이(10차) 50,000
이영주(7차) 100,000
이영호(2차) 50,000
이윤희(10차) 50,000
이인자(2차) 100,000
이정순(3차) 100,000
이정호(2차) 100,000
이주연(6차) 30,000
이지원(9차) 50,000
이태영(9차) 100,000
임부희(2차) 50,000
임소정(회원) 200,000
임순덕(5차) 100,000
임현주(7차) 50,000
전재성(7차) 100,000
정경연(1차) 100,000
정대련(6차) 200,000
정법신행회(최혜경)
1,000,000
정유진(3차) 50,000
정이연(9차) 50,000
정진희(3차) 50,000
정형은(8차) 50,000
조귀자(9차) 50,000
조명숙(8차) 50,000
조수자(회원) 50,000
조연(일반) 100,000
조은경(10차) 100,000
조은수(2차) 50,000
조재란(10차) 100,000
조정숙(사무국) 30,000
조정숙(6차) 50,000
조향숙(7차) 50,000
진정순(3차) 50,000
초량여(김인숙) 100,000
최비안(회원) 30,000
최혜경(2차) 500,000
피상순(3차) 100,000
보우법사(10차) 100,000
하수경(1차) 50,000
하지원(6차) 50,000
한주영(10차) 20,000
허정희(4차) 100,000
형난옥(6차) 100,000
형양자(10차) 50,000
홍원숙(8차) 50,000
홍정애(3차) 200,000
황남채(1차) 100,000
황선화(5차) 100,000
황수경(3차) 100,000
황수남(9차) 50,000
황외숙(4차) 100,000
황인보(5차) 200,000

여성불자108인의 날/108인회 워크숍/ 바자 후원금

강원지원 300,000
강미중(5차) 200,000
계미향(8차) 50,000
고은자(10차) 50,000
권견화(6차) 100,000
김만옥(8차) 50,000
김상리(9차) 100,000
김선옥(6차) 1,100,000
김순철(6차) 100,000
김애주(2차) 1,000,000
김외숙(2차) 750,000
김인숙(1차) 340,000
김진(2차) 100,000
김혜정(8차) 50,000
남동현(6차) 200,000
남상민(1차) 500,000
노숙령(4차) 1,700,000
노인자(5차) 50,000
박종덕(5차) 220,000
배영숙(10차) 300,000
보인스님 300,000
복식품 100,000
손미원(9차) 600,000
안애원(7차) 300,000
안은덕(8차) 300,000
안혜경(9차) 100,000
안혜경(9차) 200,000
양경윤(5차) 2,285,000
오명희(7차) 100,000
이명숙(7차) 50,000
이영주(7차) 140,000
이영희(8차) 100,000
이은영(1차) 220,000
이인자(2차) 200,000
이정호(2차) 100,000
임정란(4차) 300,000
임현주(7차) 120,000
전영숙(8차) 100,000
전재성(7차) 950,000
정경연(1차) 340,000
정대련(6차) 400,000
정영수(4차) 300,000
정외진(3차) 50,000
정은희(6차) 50,000
정진희(3차) 100,000
정형은(8차) 50,000
조윤예(7차) 20,000
피상순(3차) 200,000
하수경(1차) 100,000
형난옥(6차) 100,000
황수경(3차) 100,000
황순덕(5차) 50,000
황순연(7차) 20,000
황외숙(4차) 100,000
황치석(10차) 400,000

기타후원금 온라인 (다문화봉사단 / 교정교화센터 / 우바이예찬 /재소자영치금 / 기타)

명성스님 5,000,000
운문사 5,000,000
보인스님 1,000,000
김선옥 766,250
김옥숙 110,000
김외숙 50,000
김인숙 300,000
김형인 100,000
김희정 150,000
노인자 60,000
노현선 60,000
윤덕심 236,000
이영호 100,000
이정호 220,000
정대련 400,000
조정숙 97,900
최비안 20,000
한림대봉사클럽 600,000
황수경 540,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권경희 180,000
권승오 180,000
김여주 180,000
김옥경 180,000
김외숙 100,000
김재란 180,000
신지율 180,000
어순아 180,000
이영미 100,000
이정호 100,000
이호옥 120,000
장효욱 100,000
정대련 100,000
정재선 240,000
정진희 100,000
조은수 100,000
최혜경 100,000
형난옥 100,000
황경자 180,000

고등동복지관 후원

김숙기 60,000
김승주 120,000
김연성 120,000
김유선 10,000
김지영 120,000
김희정 3,200,000
박영숙 180,000
윤정은 60,000
이지혜 20,000
이해미 60,000
임송은 20,000
전주옥 120,000
조현정 60,000
최선민 10,000
한경숙 60,000
한정미 600,000
홍윤진 60,000
황화성 300,000

○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1월 중순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과 회원가입 안내]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정회원

- 매달 1만원 이상 회비 납부인
- 활동 센터 1개 이상 선택의 기회
- 교육과 프로그램 할인(회원활동 6개월 이상)
- 원광디지털대학 등록금 할인
- 〈우바이예찬〉 정기발송

○ 가입문의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2

[후원 안내]

○ 불교여성개발원
국민은행
023501-04-031123
예금주 :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국민은행
023501-04-095228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계좌
농협
301-0085-6744-91
국민은행
023537-04-003040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불교여성회관)

*CMS(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하실 분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헌 聽茗軒

북촌 한옥 티카페 / 차문화교육

차생활 기본교육 · 차명상
문인사예차회 · 향차회
풍류차회 · 계절 차회 등
- 매주 월 화 수 대관 가능

청명헌聽茗軒 종로구 율곡로1길 40-37 (010.4362.1055)